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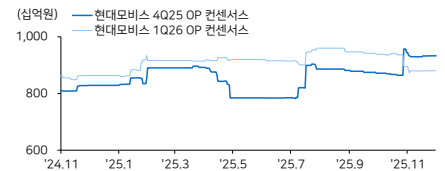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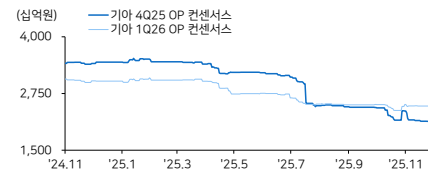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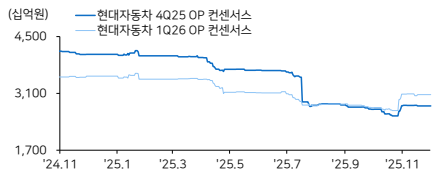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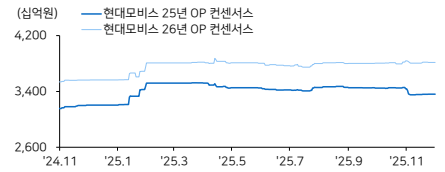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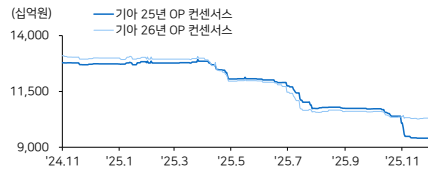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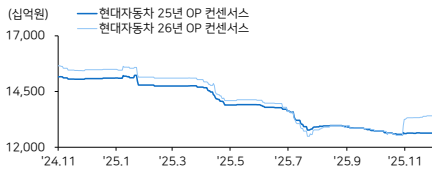
2025.12.15 (월)

자동차/모빌리티 Analyst 김준성 joonsung.kim@meritz.co.kr
RA 김아현 a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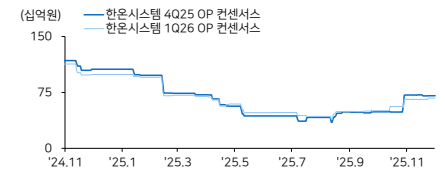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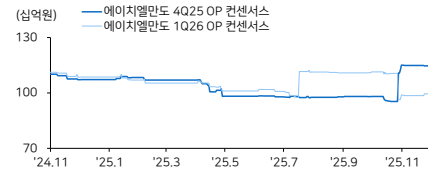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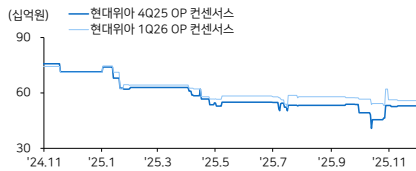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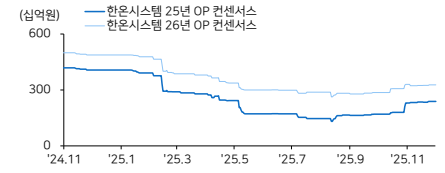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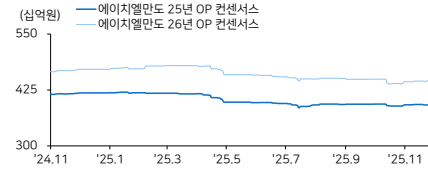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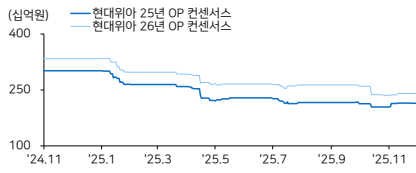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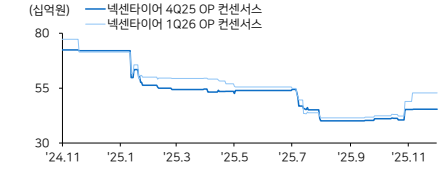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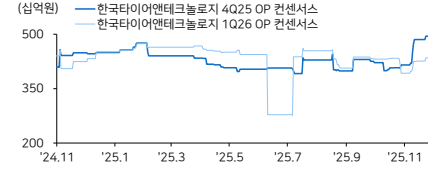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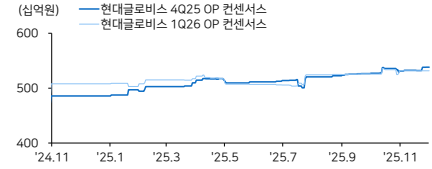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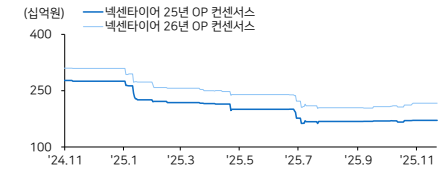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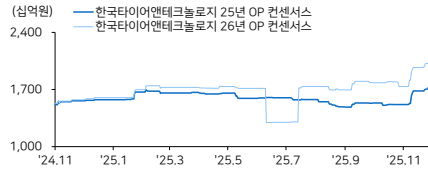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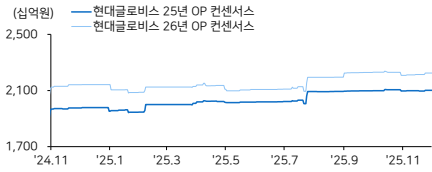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현대글로비스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국내외 주요 뉴스

장재훈 "SW 전환, 생존 문제"...현대차 자율주행에 함몰한다 (한국경제)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SDV로의 전환이 그들의 생존 걸린 타협할 수 없는 목표임을 강조하며 송창현 사장 사임 이후 동요하는 조직 분위기 관리, 기술 내재화 원칙을 고수하며 경쟁사에 대응하는 완성도 확보 계획, 그룹 차원의 '원팀' 구축 당부
<https://han.gl/1111B>

Rivian unveils self-driving chip and autonomy plans to compete with Tesla (Teslarati)

Rivian, 기존 대비 50배 강력한 성능의 독자 설계 칩 RAP1과 3세대 컴퓨팅 모듈 공개하며, 레벨 4 자율주행 목표도 설정. 카메라만 사용한 Tesla와 달리, Rivian은 11개의 카메라·5개의 레이더·전방 LIDAR 모두 활용하는 복합 센서 방식 채택
<https://han.gl/uDE8P>

교통안전공단·대서울, 전기차 국제 표준 진단 체계 개발 (뉴시스)

한국교통안전공단, Tesla 고위 방식이 아닌 국제 표준 규정 적용한 Tesla 전용 표준 시스템 세계 최초로 공동 개발. 이번 개발로 일반 민간 검사소에서도 Tesla 차량 정밀 점검 가능. 전기차 화재 위험 요소 조기 발견 및 선제 차단의 기반 마련
<https://han.gl/vxv18>

현대위아, 열관리 사업 확장...모든 차종 공조 시스템 공급 (한국경제)

현대위아, 독자 개발한 전기차 공조 시스템을 기아의 PV5에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양산 100일을 맞아 사업 본격화 선언.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가 공조 시스템도 개발하며 이를 위해 생산 설비 대폭 확충 중
<https://han.gl/mwaj>

BYD and Chinese automakers respond to new auto price rules as industry faces shake-up (CarNewsChina)

BYD·Nio·Xpeng 등, 중국 당국이 발표한 가격 가이드라인을 적극 수용하고 내부 시스템을 최적화하겠다고 발표.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 자동차 시장 내 가격 정책 준수와 및 투명성 제고 예상. 대형 업체들은 브랜드 신뢰도 상승 기회로 삼을 전망
<https://han.gl/TGXUx>

China's vehicle exports hit monthly high (ChinaDaily)

중국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중국 11월 자동차 수출량 72.8만 대(+48.5% YoY) 기록하며 사상 첫 월 70만 대 돌파. 올해 1~11월 누적 수출량은 약 634만 대(+YoY 18.7%)로 집계. 관계자는 올해 수출량 700만 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https://han.gl/wsCMW>

혼다, 2027년 디서 AI 자율주행차 판매...HEV·EV에 가능 탑재 (연합뉴스)

혼다, 2027년 4월 이후 출시될 SUV '베젤' HEV와 EV '살론'에 자율주행 시스템 탑재 판매 계획. Nissan-Mitsubishi 함께 2027년 자율주행 서비스 시작 예고함에 따라 일본 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 간 자율주행 시장 선점 경쟁 본격화 전망
<https://han.gl/HJYIE>

'5년 표류' 현대차 GBC 사업 재개...연내 추가협상 마무리 (머니투데이)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협상 타결되면서 5년 동안 중단된 GBC 사업 본격 재개. 기존 105층 랜드마크 대신 54층 규모의 빌딩 3개 동을 짓는 안 확정. 연내 인허가 절차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9년에서 2030년 사이에 완공될 것으로 전망
<https://han.gl/HJYIE>

Electric Ford Bronco rolled off the production line in China ahead of the sales start (CarNewsChina)

Ford·중국 JMC 합작사의 전기 SUV Bronco의 본격적 양산 시작되었으며, 현지 판매 가격은 약 22만 9,800위안부터 시작. BEV 모델은 105.4kWh로 650km를 주행하며, EREV 모델은 엔진을 발전기로 활용해 최대 1,220km까지 주행 가능
<https://han.gl/jeubm>

"전기차, 세금 및 내내 도로 더 망가뜨려"...추가세금 검토중인 이 나라 (이코노미스트)

일본 재무성, 휘발유세를 내지 않는 전기차에 대해 차량 무게에 따른 'EV 중량세' 별도 부과하는 방안 논의 중. 전기차는 배터리 때문에 내연차보다 무게워 도로 인프라를 더 많이 파손시키므로, 유지 보수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
<https://han.gl/KnmG>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외, 배포 될 수 없습니다.